

# 섬·하늘·바람의 기억과 감성 시에 담다

신안 출신 주영국 시인

첫 시집 '새점을 치는 저녁' 펴내

35년간 공군 기상대 근무

오월문학상·시와 사람 신인상 수상

“오랫동안 경계 없이 흘러가는 바람과 구름을 보고 살았습니다. 저편의 자연은 무한히 자유로운데 이편의 나는 꼼짝없이 갇혀서 기상을 관측해야 했지요. 답답한 것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내면은 늘 자유를 꿈꾸었죠.”

35년간 공군 기상대에서 근무했던 이가 첫 시집을 펴내 '화제'다. 주인공은 광주전남작가회의 사무국장 주영국 시인. 얼핏 '공군', '기상대', '시인'은 부조화의 언어처럼 보인다. 그러나 창작의 분야에서는 이질적인 요인들이 이색적인 울림과 독특한 정서를 환기한다.

주 시인이 최근 발간한 '새점을 치는 저녁' (푸른사상)은 그러한 서로 다른 영역의 언어들이 교집합을 이룬다. 한 권의 시집에는, 더욱이 첫 작품집에는 시인이 걸어왔던 삶의 모습들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기 마련이다.

첫 시집을 건네는 주 시인은 담담하면서도 조금은 상기된 표정이었다. “35년간 공군 기상대에서 근무했다”는 말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문학적 이력만 보면 시집을 내도 몇 권은 냈을 법한 연배인데, 이제야 작

품집을 출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직업군인으로 30년이 넘게 근무를 했다”며 “기상대에서 하늘만 바라보며 살다보니 끊임없이 내면의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에게서 정체되면서도 단단한 심지가 머릿속에서는 시들이 피어올랐어요.”

“기상에보관을 하는 동안 글쓰기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보고 있으면 보이는 건 경계 없이 흘러가는 바람, 구름뿐이었습니다. 이편의 몸은 갇혀 있으니 역ભ출만 큼 머릿속에서는 시들이 피어올랐어요.”

신안의 작은 섬 여의도에서 태어난 시인은 서정적인 기질이 다분했다. “첫 작품집이라 일부러 고향 섬 이름을 저자 이력란에 넣었다”며 웃었다. 작품에 시적 공간으로서의 고향과 밤별이를 위해 몸담았던 생계의 공간, 그럼에도 창작을 위해 숨어들어야 했던 내적인 공간이 여실하게 펼쳐져 있는 건 그 때문이다.

“군에 있을 때 금서로 규정된 책들과 진보 매체가 발간하는 잡지들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전태일문학상을 받은 후 진보적인 문학회에 가입해 활동도 했구요. 그러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록 군인 신분이었지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고전을 금서로 지정하고, 서명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세상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의미다. 틈 날 때마다 작품을 써두었던 건 그러한 연유 때문이다. 표제시 '새점을 치는 저녁'은 그의 문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새점을 치던 노인들이 돌아간 저녁/ 공원의 벤치에 앉아 나도 새를 불러본다/ 생의 어디에선 발자국을 찍으며/ 기억을 놓고 오기도 해야 하였는데/ 난독의 말쑥한 표들만 이으며 지나왔다/ 누군가의 경고가

없었다면 짧은/ 문장의 마침표도 찍지 못했을 것이다...”

“새점을 치는 저녁”에 대해 오홍진 평론가는 시에 “파장이 된 인생들이 이곳저곳에 등장한다고 풀이했다. 다들 나쁜 인생을 살아온 것인데 “누구는 지금 통중에 시달리고, 또 누구는 공터에 버려진 채 추억을 되짚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우리 시대를 사는 민초들의 모습을 상기한다. ‘허방세상 낙조’, ‘봄이 불 한 채’ 등의 시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시선과 내면은 따스하면서도 애잔하다.

시인은 군 복무를 하며 전국을 돌다시피 했다. 백령도, 예천, 사천, 논산 등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고 이라크 파병지에서도 근무했다. 각각의 시들에는 섬의 원초적 정서와 여러 곳을 떠돌았던 유목적 감성, 내면이 잠겨진 섬 특유의 분위기가 응결돼 있다.

나해철 시인은 추천의 글에서 “자연의 곁에 자신의 영혼을 실어 한없이 깊어진 기록이 여기 있다. 주영국 시인은 스스로를 무한하고 영원한 것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법을 알고 있다”며 시간과 빛이 되어 시간이 인간들과 만나는 비의(悲意)들을 노래하고 또 노래한다. 더불어 자연과 역사 속의 결기 앞에서 단정하게 목숨의 강건함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평했다.

한편 주영국 시인은 19회 오월문학상과 2010년 ‘시와 사람’ 신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작가회의 회원과 죽림시사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 여름, 독일 문화관광의 현장을 둘러 보기 위해 베를린의 이스트갤러리를 찾았다. 관광하기엔 조금 이른 오전 시간이었지만 이스트갤러리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인파로 북적였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베를린을 배회하며, 또 누구는 공터에 버려진 채 추억을 되짚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우리 시대를 사는 민초들의 모습을 상기한다. ‘허방세상 낙조’, ‘봄이 불 한 채’ 등의 시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시선과 내면은 따스하면서도 애잔하다.

이에서 시작한 구조물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깊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처럼 킁을 흘쩍 넘긴다. 이 때문에 걸터 앉을 만큼 낮은 구조물이 안으로 들어가면 높이가 4m를 넘어 옹골 높이가 3.6m의 장벽에 그려진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1989년 11월 9일 붕괴된 ‘그날’을 기억했다. 그도 그럴것이 이스트갤러리는 베를린 장벽의 아픈 과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이다. 서베를린을 포위했던 총길이 160km의 장벽중 약 1.3km구간을 복원해 자유와 평화를 주제로 한 전 세계 예술가 100여 명의 다양한 그림을 펼쳐 놓았다.

이 기간에 장벽 붕괴 관련 행사가 2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독일 사회

## 베를린과 광주

로 방문한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비공원이었다. 정식명칭은 ‘학살된 유럽의 모든 유대인을 위한 기념공간’. 독일의 행정·정치·외교 중심기에 자리한 홀로코스트 추모비공원은 독일 연방의회가 나치정권 당시 학살 당한 유대인 희생자 60만 명을 기리기 위해 조성했다.

유대계 출신인 미국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은 나치에 희생된 사람들의 묘석을 상징하기 위해 축구장 세 배 크기의 거대한 광장에 가로(95cm), 세로(238cm) 크기의 2711개 구조물을 세웠다. 당시 독일의 수도 한복판에 수천 개의 돌기둥 ‘무덤’을 짓는 ‘전후후한’ 구상은 뜨거운 쟁점이 됐지만 독일 정부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부끄러운 과거라도 감추지 않기 위해서였다.

홀로코스트 추모비공원 입구에 들어선 순간 수많은 구조물들이 늘어선 거대한 콘크리트 숲에 압도된다. 무릎 높

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했다. 특히 30년 전 동독 민주화를 외친 시민들의 발자취를 재현한 ‘평화혁명의 여정’ (The route of the peaceful Revolution)은 하이라이트였다. 불행한 역사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현장과 다크투어리즘으로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년은 광주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매년 광주에서도 5·18을 기념해 5월 한달동안 추모, 학술, 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서 5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단체의 연례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나친 엄숙주의로 인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오는 202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과 지혜가 필요하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삶 노래하는 시로 '활활'해지는 세상 꿈꾼다

정우영 시인 '시에 기대다' 펴내

“아마도 내 독법이 모자라고 시야가 좁아서 그럴겠지만, 요즘 들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시집들이 많아졌다. 모호함이 아니라, 이해 불가할 때가 있다. 이 와중에 내가 겨우 읽어 낸 개념이 '무중력'이다. (중략) 시인들은 이제 시공간을 해체하고 싶은 것일까.”



다면, 그러한 시로 인해 세상이 더욱 활활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다감한 것들의 기적'은 삶의 연륜이 깊어진 시인들의 울림과 감동을 풀어냈다. 2부 '시의 첫 마음'에는 당대의 삶을 총총히 새긴 시집들에 대한 총평을 모았다. 3부 '좌절과 성찰의 시'는 김남주, 신동엽, 운동주 등의 시를 다루며 그들이 피워 올린 좌절과 성찰을 응시한다. 마지막 4부 '무중력과 중력 사이'에는 최근 시의 흐름인 '융합적 리얼리즘'이란 이름으로 살펴본 글들이 수록돼 있다.

전북 임실 출신 정우영 시인이 시평에세이집 '시에 기대다' (문학들)을 펴냈다. 그동안 30주년을 맞아 펴낸 이번 에세이집에는 시를 통해 '활활'해지는 세상을 꿈꾼다. 역동적인 세상에 대한 회고는 시인이 지난해 8년 만에 펴낸 네 번째 시집 '활에 기대다'를 떠올리게 한다. 표제작 '활에 기대다'는 무지개를 '일곱 개의 활'로 비유해 새로운 세상과 세계를 염원한 바 있다.

세 번째 시평에세이집인 이번 작품집에서 저자는 시에 대한 관점과 방향을 보여준다. 회로애락과 천변만화하는 인간의 삶을 노래하며 기록하는 것이 시라고 상정한

한편 저자는 송실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1989년 '민중시'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4권의 시집과 3권의 시평에세이집이 있으며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14·15일 아시아문화 가치 조명 학술 토론회

ACC 개관 4주년 기념

아시아 문화 현장과 연구를 통해 생성된 다양한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 토론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4주년을 기념해 ACC가 주최하고 아시아문화원(ACI)이 주관한다.

오는 14일과 15일 오후 1시 ACC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 토론회의 주제는 '아시아 문화 현장과 연구: 가치생산과 공유'. 아시아의 음식과 문화, 디자인은 물론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영국, 스페인 등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14일 세션1 '실천과 운동으로서 소리 만들기'에서는 하위문화, 언더그라운드, 실험음악, 대안문화운동 등 소리와 음악적 실천이 아시아 곳곳에서 발현한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미정 아시아문화원 연구원의 사회로 '동남아시아 음악 하위문화와 문화 유물

아카이빙' (조키트·라이스쿠르 아카이브/음악가), '포스트 히든 어젠다 시대의 홍콩 언더그라운드 음악' (아국 왕·런던시태대 학교 박사과정/음악가), '공유하는 사람들' (누라이니 줄리아스투티 문화문화연구소) 등이 진행된다.

15일에는 모두 세 개의 세션이 펼쳐진다. 먼저 세션2(오전 9시30분) '아시아 생활문화: 음식, 문양, 디자인'에서는 '한국 현대 디자인사: 아카이브 구축 방법과 접근법' (자라 야사드 ACC 방문학자), '페르시아 카펫의 디자인과 문양-이란 현지 조사를 중심으로' (정지희 아시아문화원 연구원)가 발표된다.

세션3의 주제는 김지하 아시아문화원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콘텐츠 연구'. 이 시간에는 '문화콘텐츠 연구의 한국적 국면과 전망' (신광철 한신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아시아 문화 콘텐츠 연구와 사례' (안재연 아시아문화원 연구기획팀장) 등이 발표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신나는예술여행' 내년 사업 다음달 12일까지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신나는예술여행'이 2020년 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신나는예술여행'은 역량 있는 예술단체가 공연장 외 다양한 시설과 야외장소를 찾아가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칭형, 기획형, 청년형 세 유형이 있으며 단체별 공연 횟수에 따라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또는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접수는 12월 12일 오후 5시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예술위 홈페이지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